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정유림¹ · 정성화² · 한삼성^{2*}

¹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²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Women Workers

Yu-Rim Jeong¹ · Seong-Hwa Jeong² · Sam-Sung Han^{2*}

¹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Daegu Haany University

²Faculty of Health Science,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women workers using the dataset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KNHANES 2th). There were 955 subjects.

Methods: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women workers.

Results: A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education($b=0.014$, $p=0.029$)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women workers and non-osteoarthritis($b=0.037$, $p<0.001$)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women worker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preventing osteoarthritis in non-regular employment.

Key words: educati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steoarthritis, women workers

I.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해 가면서 과거에 비해 노동시장도 더욱이 활발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근로유지와 근로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3년 50.2%, 2014년 51.3%, 2015년 51.8%, 2016년 52.1%, 2017년 52.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KOSTAT, 2018).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은 증가되고 있는 반면, 불안정한 직업, 높은 실직률, 경력 단절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저출산 등의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근로환경에서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과 가정 내에서의 역할수행의 억압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이러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가족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근로능률 저하로 여성의 실직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직업과 관련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며 이에 따른 건강상 문제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Kim et al., 2003). 특히 여성은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특성과 육아부담 및 가사노동과 같은 주변 환경적인 영향이나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소외 등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Song, 2001; Choi & Jung, 2013). 여성은 결혼 후 경력단절로 인해 재취업을 하고자 하나 정규직으로 고용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 시간제 근로


*Corresponding author: Sam-Sung Han, Tel: 053-819-1802, E-mail: sshan@dhu.ac.kr

Faculty of Health Science, Daegu Haany University, 1 Hannydae-ro, Gyeongsan-si, Gyeongbuk 38610

Received: February 28, 2018, Revised: March 8, 2018, Accepted: March 24, 2018

 Yu-Rim Jeong <http://orcid.org/0000-0003-0032-8033>

 Seong-Hwa Jeong <http://orcid.org/0000-0001-7100-7443>

 Sam-Sung Han <http://orcid.org/0000-0002-4350-7309>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삶은 만족스러운 삶이 아닌 생존 즉, 나의 경력을 지속하고, 내가 하던 일의 영역에서 살아남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Park & Sohn, 2014). 더욱이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어 여성 근로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강도는 남성 근로자보다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Cho et al., 2013). 이처럼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근로조건으로 오는 직무스트레스 등의 건강관련 문제는 정서적 우울이나 신체적 건강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근로자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코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정서적 대응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나(Jeon & Kweon, 2015), 여성 근로자들은 근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자아정체감 위기에 빠져 우울이나 심리적인 불안과 신체적 건강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Kim, 2010).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반면 직무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Lee et al., 2013), 이러한 정서적 부조화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근로 환경에서 오는 업무 패턴과 업무 특성, 업무 시간으로도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Lee & Phee, 2016).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 직무 스트레스에 관심을 두고 수행되었으며(Jung & Shim, 2011), 일과 가정의 양립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나(Lee, 2001), 작업환경, 근무조건, 직무 스트레스 등에 관한 연구만이 수행되었다(Lee et al., 2017). 이처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고찰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제 6기 2차년도(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을 건강관련 삶의 질과 각각 비교하고, 고려된 변수들을 보정한 후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 2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본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제 6기 조사는 3년간 조사구 576개를 추출하여 표본 조사구 내에서 양로원, 교도소, 군대 등의 시설 및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한 적절 가구 중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20개 표본가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 2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이고 종사상 지위에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 항목에 무응답이 없는 955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1) 종속변수: 건강관련 삶의 질(EQ-5D index)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은 건강상태 삶의 질의 측정도구인 EQ-5D를 사용하였다. EQ-5D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묻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능력(mobility; M), 자기관리(self care; SC), 일상 활동(usual activity; UA), 통증/불편(pain/discomfort; PD),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 AD)로 분류되었다. 3점 척도로 된 문항은 '전혀 문제 없음'을 1, '다소 문제 있음'을 2, '많이 문제 있음'을 3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문항 순서대로 '11223' 상태는 운동 능력과 자기관리는 전혀 문제 없고, 일상 활동과 통증/불편감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불안/우울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합은 243개가 나올 수 있으며, 건강관련 삶의 질의 측정도구인 EQ-5D는 가중치를 계산하여 EQ-5D index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값은 클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EQ-5D=1-(0.05+0.096*M2+0.418*M3+0.046*SC2+0.136*SC3+0.051*UA2+0.208*UA3+0.037*PD2+0.151*PD3+0.043*AD2+0.158*AD3+0.05*N3)$$

2)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로환경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지난해 월 평균 가구 총소득, 결혼상태, 가구원 수 등의 항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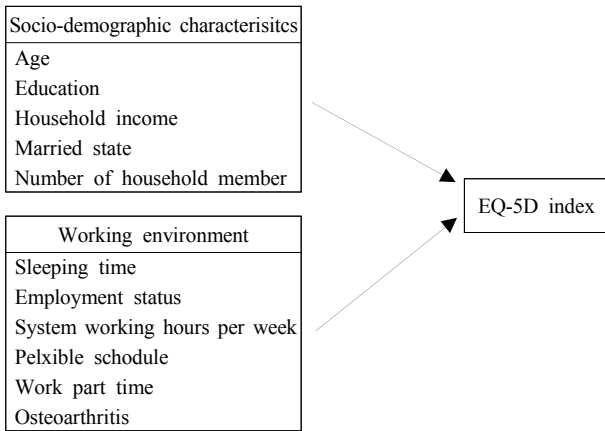


Figure 1. Study Design

고려하였다.

근로환경 특성은 하루 평균 수면시간과 정규직 여부, 주당제 근로시간, 변형 근로시간, 근로시간제, 골관절염 의사진단 여부 등의 항목으로 고려하였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양적 변수를 ‘5시간 이하’, ‘6-8시간’, ‘9시간 이상’의 3점 척도로 재분류 하였다. 정규직 여부는 2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주당제 근로시간은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였다. 변형 근로시간은 ‘주간근무’, ‘저녁근무와 밤근무’, ‘분할근무 및 교대근무’

로 3점 척도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근로시간제는 ‘전일제’, ‘시간제’의 2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당제 근로시간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상관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고려된 변수들을 보정한 후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Version 23.0K, USA)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5%로 고려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령은 높아질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

Table 1. The Health-related Quality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EQ-5D	P-value
Total		955	0.89±0.05	
Age	20-30	328	0.896±0.029 ^a	<0.001
	40-50	472	0.894±0.035 ^b	
	≥60	155	0.857±0.091 ^c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59	0.859±0.087 ^c	<0.001
	Middle school	95	0.881±0.064 ^b	
	High school	319	0.893±0.036 ^{ab}	
	≥College	382	0.899±0.018 ^a	
Household income(10,000won/last year)	< 100	92	0.858±0.096 ^b	<0.001
	≤100-199	126	0.889±0.036 ^a	
	≤200-299	145	0.884±0.059 ^a	
	≥300	592	0.894±0.035 ^a	
Married state	Married group	607	0.893±0.038	0.002
	Partnerless	348	0.881±0.063	
Number of household member	1	102	0.866±0.082 ^b	<0.001
	2	232	0.884±0.062 ^a	
	3	270	0.891±0.040 ^a	
	4	265	0.896±0.024 ^a	
	≥5	86	0.895±0.028 ^a	

^{abc} The same letter indic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지난해 월 평균 가구 총소득 또한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었다($p<0.001$). 결혼상태는 기혼인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0.893, 미혼은 0.881로 기혼인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2$). 가구원 수는 많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나 4명이상일 때는 건강관련 삶의 질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01$).

2.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면시간은 5시간 이하인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0.881, 6-8시간은 0.892, 9시간 이상은 0.868로 적정 수면시간인 6-8시간의 수면시간을 가질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고용상태는 정규직인 경우 비정규직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경향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주당제 근로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주당제 근로시간이 길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었다($p=0.001$). 근로시간제는 전일제인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시간제인 경우보다 높은 경향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2$). 골관절염 의사진단 여부는 진단을 받지 않은 집단이 건강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변형 근로시간은 주간근무인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0.889, 저녁 및 밤 근무인 경우 0.881, 분할근무 및 교대근무는 0.899로 분할근무 및 교대근무인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경향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12$).

3.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적합된 선형회귀모형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EQ-5D : $F=9.655, p<0.001$), 또한 고려된 변수들과 건강관련 삶의 질($R^2=0.154$)의 변동을 15.4% 설명하였다.

고려된 변수들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b=0.014, p=0.029$), 골관절염 의사진단 여부($b=0.037, p<0.001$)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지난해 월 평균 가구 총소득, 결혼상태, 가구원수, 수면시간, 고용상태, 주당제 근로시간, 변형 근로

Table 2. The Health-related Quality according to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EQ-5D	P-value
Sleeping time	≤5hours	140	0.881±0.068 ^{ab}	
	6-8hours	757	0.892±0.041 ^a	<0.001
	≥9hours	58	0.868±0.079 ^b	
Employment status	Regular employment	296	0.898±0.023	
	Non-regular employment	659	0.884±0.057	<0.001
System working hours per week*		955	0.109	0.001
Flexible schedule	Day duty	806	0.889±0.044	
	Working dinner	101	0.881±0.083	0.112
	Split shift and Shift work	48	0.899±0.015	
Work part time	Full time work	658	0.893±0.037	
	Part time work	297	0.880±0.068	0.002
Osteoarthritis	Yes	112	0.844±0.104	
	No	843	0.895±0.032	<0.001

^{ab} The same letter indic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ystem working hours per week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시간, 근로시간제는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본 연구는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 2차년도(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변량 분석 결과,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는 교육수준과 골관절염 의사진단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이고 골관절염 의사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으로 사회 진출이 높아졌으나 승진과 고용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취약계층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즉,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고 월 가구 수입이 낮은 경우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Kim 2005), 이를 근거로 교육수준이 근로조건과 영향이 있고 이와 관련해 신체적 건강 문제에 발생 원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게 보고되었는데(Kim 2012), 이는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률이 저하되고 건강이 악화되면 직장으로 복귀하는 기간 또한 길어져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아진다.

한편 단변량 분석 결과,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차이에서도 직장 여성은 건강에 대한 유익성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가정과 근로자라는 역할에서 요구되는 업무로 신체활동의 시간은 부족하고(Chae et al., 2013),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환경에서 오는 부담에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수면시간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적정 수면시간인 6-8 시간을 가질 때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군에서 수면문제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Kim & Ko, 2015). 고용상태는 정규직인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 보다 유의미하게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는데, 남성들에 비해 여성은 육아와 채용 및 승진에 적지 않은 불

이익과 비정규직등의 불안정한 근로형태인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주당제 근로시간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낮고, 근로시간제가 전인제인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 근로자들이 매주 일을 하고 보상을 받는 자율적인 근로 환경 형태일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에 여성은 결혼 후 육아와 가사 등으로 가정에서서의 역할 책임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성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갱년기와 같은 신체적 변화가 오면서 정서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시기(Lee & Choi, 2011) 신체적 불편함과 우울은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Park, 2009 ; Yang & Yon, 2009 ; Kim 2010 ; Choi et al, 2012). 지난해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높을수록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과 고용형태와 같이 연관 지어 볼 수 있으며,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혼인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살펴 볼 때, 배우자가 직장이 있는 맞벌이 부부일 경우 여성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다고 사료된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기혼 여성의 경제적인 부담에서 보호요인을 작용한다는 Jeong et al.(2017)의 연구결과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구원 수는 3명 이상일 때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Ezar & Deckman(1996)의 연구에서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는 6세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 보다 직장가정 사이의 불만족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로 볼 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족과의 대화로 인해 스트레스로부터 보호요인이 되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설계가 횡단면 연구로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적인 원인-결과(causality)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횡단면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고려한 종단연구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

Table 3. Effects of the Health-related Quality

Characteristics	Categories	EQ-5D	
		b	P-value
Age	20-30	1	
	40-50	0.002	0.593
	≥60	-0.010	0.117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	
	Middle school	0.003	0.611
	High school	0.010	0.084
	≥College	0.014	0.029
Household income(10,000won/last year)	<100	1	
	≤100-199	0.013	0.051
	≤200-299	0.001	0.862
	≥300	0.003	0.601
Married state	Married group	1	
	Partnerless	-0.006	0.079
Number of household member	1	1	
	2	0.007	0.223
	3	0.007	0.272
	4	0.009	0.194
	≥5	0.010	0.187
Sleeping time	≤5hours	1	
	6-8hours	0.002	0.577
	≥9hours	-0.014	0.050
Employment status	Regular employment	1	
	Non-regular employment	-0.001	0.858
System working hours per week*		0.015	0.095
Flexible schedule	Day duty	1	
	Working dinner	-0.004	0.384
	Split shift and Shift work	0.008	0.230
Work part time	Full time work	1	
	Part time work	-0.003	0.410
Osteoarthritis	Yes	1	
	No	0.037	<0.001
F-value		9.655	
P-value		<0.001	
Adjusted R ₂		0.154	

*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ystem working hours per week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하
는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사회학적 관점으
로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V. 결 론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가 가정의 양립에서 가중되는
부담으로 여성의 건강과 가정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

으므로 여성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올 수
있는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여성은 아직까지도 사회에서 취약계층이므로 이
들을 위한 가정과 직장에서 오는 부담을 고려한 정책
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한점으로 여성 근로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무경력, 업종 분류, 근로 시간, 자녀연령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정부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에서 오는 부담완화를 위해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강화하도록 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Chae DH, Kim SH, Lee CY. A study on gender differences in influencing factors of office workers' physical activity. *JKACHN* 2013;24(3):273-281
- Cho HS, Kim YW, Park HW, Lee KH, Jeong BG, et al.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mong female workers and job stress and sleep quality. *AOEM* 2013;25(12):36-44
- Choi JS, Lee EH, So AY, Lee KS. Quality of life in the urban adults by Age. *JMJH* 2012;19(3):362-372
- Choi YS, Jung MH. A study on job stress of female office workers. *JKDAS* 2013;15(5):2633-2643
- Ezra M, Deckman M. Balancing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 flextime and child care in the feder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96;56(2): 174-179
- Jung ES, Shim MS. Affecting factors on depression among female labor workers. *KOCON* 2011;11(12):822-831
- Jeon HO, Kweon YR. Effects of emotinal labor, somatic symptoms, and emotion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among middle-aged female workers. *KJAN* 2015;27(5): 537-547
- Jeong YR, Jeong SH, Yoo WK, Han SS. The effects of economic support from spouse on depressive symptoms of working women. *KSHSM* 2017;11(2):93-103
- Kim AK. Yangaeng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in middle aged women. *KJWHN* 2010; 16(3):9
- Kim CB, Ko JS. Effect of the health behaviors on subjective sleep problems in an employees. *TKCS* 2015;15(6): 337-345
- Kim DS. Study of the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job stress in auto part company. Dong-Eui University. Busan; 2012. p.15-21
- Kim IH, Paek DM, Cho SI. Does non-standard work affect health?. *JPMPH* 2005;38(3):337-344
- Kim JB, Lee KJ, Park JA, Han SH. The affecting factors in health status among selected female labor workers. *KIHAI* 2003;13(2): 164-171
- Kim HY. The effect of married woman's job stress on the marriage satisfaction. Donga University. Busan; 2010. p.63
- Lee JS, Choi WS. A study on path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of married working women. *JAW* 2011;50(1):169-198
- Lee JH, Song YW, Cha TH. A study on job stress and working environment of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 *KAIS* 2017;18(2):484-492
- Lee MS. Mediating effects of family-supportive services in family-work conflict situation. *KJFSW* 2001;-(7): 201-230
- Lee SY, Choi IR, Kim EY. Factors affe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ployed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KDAS* 2013;15(4):2069-2084
- Lee YM, Phee YG. The effects of occupational stress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female labor workers. *KIHA* 2016;26(2):210-218
- Park JY, Sohn YM. A typology of female workers' work-life balance : fcused on full-time female paid workers using the 2009 korean time survey. *KFRMA* 2014;18(2): 75-102
- Park YR, Son YJ.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to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women across the lifespa. *JKAN* 2009;16(3):353-361
- Song DY. Women, health, and wellbeing. *Issues in Feminism* 2011;11:149-180
- Statistics Korea.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
- Yang SM, Yon MH. A study on the enculturative stressors, stress respons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areas. *KPA* 2009;21(4):943-966